

하이라이트 전시에 다녀와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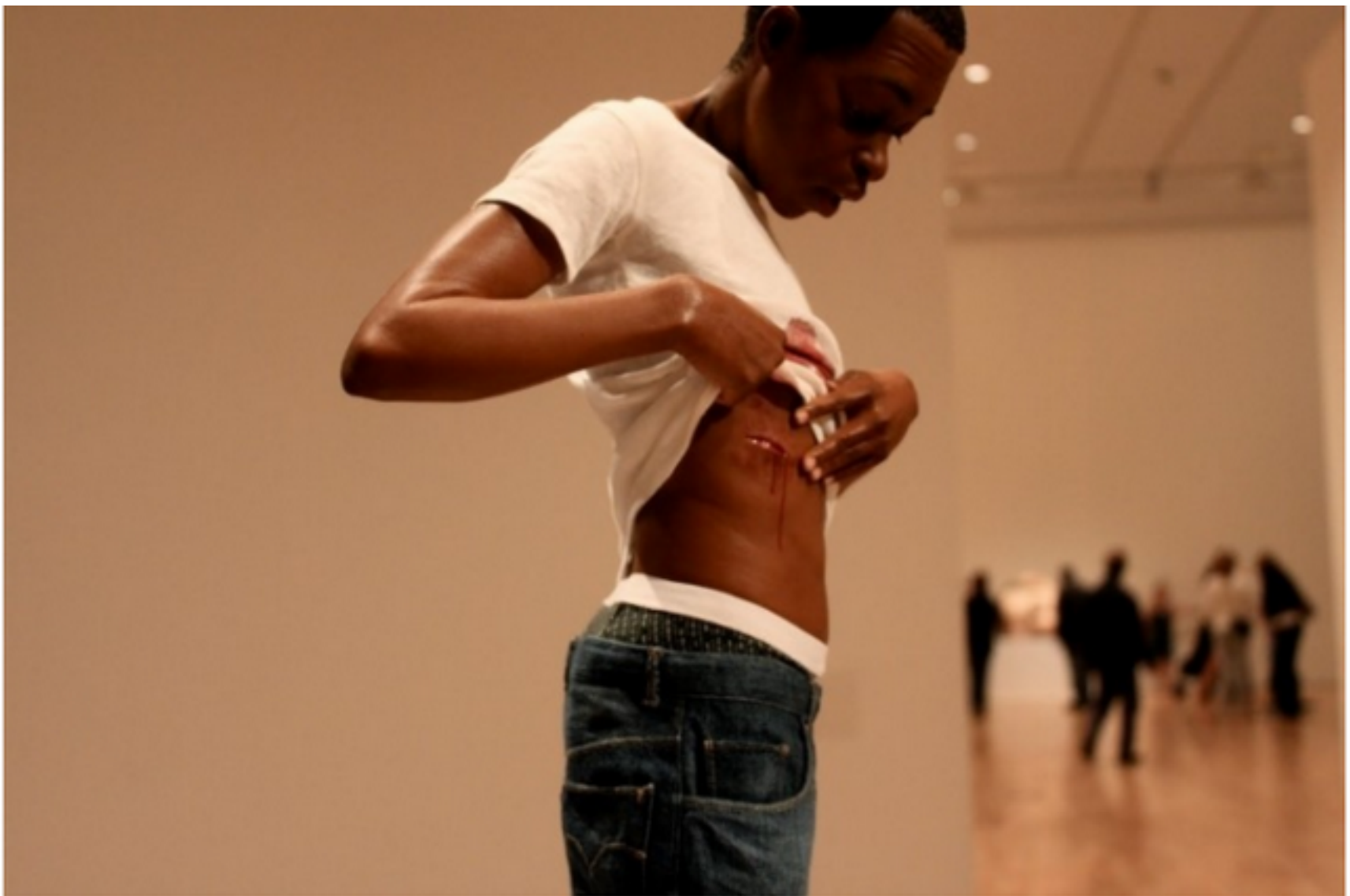
이름 성주현
학번 20161462
과목 형태와 구조
교수 금누리

까르띠에 재단이 주최한 전시에는 처음 가보았는데,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멋질만이 아니라 새롭고 다

양한 아름다움을 가진 멋질들이 많았다.. 현재의 문제점들을 다룬만큼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멋질들을 만날 수 있었다. 레이몽 르파르동 멋질비의 '그들의 소리를 들으라'를 보면서, 내가 얼마나 내 일 이외에 다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외면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걸 반성해볼 수 있었고, 그들의 그런 소리들을 주목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멋질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

론 뮤익의 멋질들은 모양만 극사실주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,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지친 어머니의 지친 모습을 장바구니에 그득하게 담긴 물건들까지 그려내어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한 것 같았다. 가만히 마주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천천히 걸어서 나를 지나쳐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.

집에 와서 찾아보니 론 뮤익의 다른 멋질들도 정말 사실적이었는데, 특히 젊음이라는 작업이 제일 인상적이었다.



Youth, mixed media

한 소년이 다친 자기의 상처를 바라보고있는 모습인데, 옷에 묻어있는 피도 방금 배어나온것처럼 생생해서 당장 상처를 치료해줘야 할 것만 같았다. 아쉽게도 이 멋질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, 기회가 있다면 꼭 직접 보고 싶다.

내가 생각하기로는 영상 중에선 뫼비우스의 다시 지구라는 영상멋질이 제일 좋았는데, 들어가자마자 본 첫 장면이 헤엄치고 있는 인간들이었고, 앉아서 처음부터 차분히 다시 보니 더욱더 신비롭게 느껴졌다.

마치 영화관에 온 듯한 생생한 움직임에 원래도 환상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나는 이런 멋질들을 돈을 내지 않고 볼 수 있다는 데에 죄책감이 들 정도였다.

영영 모를 수도 있었던 전시를 이번 기회를 통해 보고 오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다양한 멋질들을 볼 줄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멋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전시를 자주 다녀오지 않던 과거를 반성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자주 가보고 싶다.

(사진출처- 성주현, 구글 론 뮤익)